제64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3일)

동방의 큰 나라를 그린 지도, 대동여지도

장상훈, 119호 조선3실 18:00~18:30

김정호(金正浩, 1804?~1866?)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그의 업적 가운데 단연 정점에 있는 것으로, 평생에 걸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는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국토를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지도를 1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펴고 접을 수 있게 제작하여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 크기의 대형 전국지도가 구성됩니다.

김정호는 국토의 뼈대가 되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국토의 자연 환경을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백두산에서 비롯되어 방방곡곡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모습을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 섬세하게 표현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고을과 도로 등 여러 인문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행정 정보를 비롯하여 군사·경제·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지리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와 같이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여 11,5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지명들을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은 《대동여지도》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도로에 표시된 거리 표시도 《대동여지도》의 편리함을 더해 주는데, 10리 간격으로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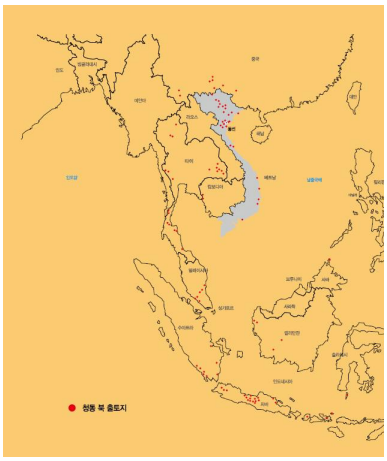
《대동여지도》를 목판 인쇄본으로 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목판본 지도는 필사본 지도에 비해 많은 수량을 비교적 손쉽게 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 정확한 지리 정보가 일단 목판에 반영되면 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64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3일)

동남아시아의 청동기 문화 베트남 동선

이상미, 306호 인도동남아시아실 18:00~18:30

동선문화는 기원전 500~기원전후의 시기에 베트남 북부 홍강의 중류역에서 발전하였던 청동기문화입니다. 동선사람들은 홍강의 삼각주를 터전으로 농경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제방을 쌓아 홍수를 통제하고 수로와 배수로 등 관계시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풍족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동선의 청동기문화는 크게 발전하면서 동남아시아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동북은 동선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청동북은 중국의 윈난성, 태국,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넓게 분포합니다. 청동북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홍강유역에서 만들어져 교류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동북은 중앙에 태양문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 정교한 문양을 새겼습니다. 청동북은 말 그대로 타악기인 북입니다. 농경의례를 행하면서 연주되었으며,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동선의 청동기는 의례에 이용되는 청동북, 종과 같은 타악기가 많이 제작되었으며, 신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장신구가 제작되는데 청동판을 넓게 두르고 작은 종을 달거나 장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화려하게 장식한 단검과 화살촉, 창 같은 무기류도 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농경과 관련한 낫, 쟁기 등 농기구가 제작되어 청동기가 문화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기의 발달은 사회분화를 촉진시키면서 급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게 되어 고대국가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동선의 청동기문화 위에서 최초의 고대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반랑국(기원전 690~257)은 부족연맹체 사회로 왕은 세습되었으며, 고유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울락국(기원전 257~179)이 세워졌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남월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漢의 군현이 설치되면서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64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3일)

고목재의 보존처리

박영만, 104호 삼한실 19:00~19:30

목재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재료로써 수집과 가공이 용이하고 무게에 비해 강도가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생활용구와 건축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곤충이나 미생물에 의해 부후(썩음)되기 쉬워 건조된 목조문화재나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제유물의 경우 대부분 외형은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목재는 외부환경(온도, 습도)에 따라 심하게 수축 변형되어 원래 모양을 잃게 됩니다. 특히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제유물의 경우는 목질 대부분이 소실되어 발굴 즉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하게 수축되어 원래 유물의 형태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약해진 목재 세포 공간에 고분자 수지를 주입함으로써 강도를 높이고 수축 변형에 대한 저항성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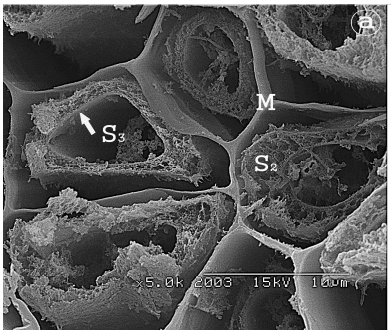


그림1. 썩은 목제유물의 세포

그림2. 창원 다호리 출토 목관 출토상태

그림3. 창원 다호리 출토 목관의 보존처리 완료 모습

제64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7월 3일)

문화재의 재질, 과학적 분석으로 살펴보다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전시품을 중심으로-

노지현, 302호 청자실 옆 19:00~19:30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떻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조취를 취하고 문화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바로 문화재 보존과학입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에는 보존처리, 분석, 환경 등 여러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 문화재 분석은 첨단 분석 과학 장비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보존과학의 한 분야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에 숨어있는 중요한 정보를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분석은 주로 학술 연구나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 이루어지지만, 전시 준비 단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과학적 분석은 전시품의 재질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 개막하였던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에 전시되었던 고려시대 옥석류에 대한 분석은 옥석류의 정확한 재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고려 지배층이 선호했던 문화적 기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일면천수관음좌상 등의 불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는지, 표면 장식을 위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분석이 가능하여 전시, 보존처리, 학술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1. 다양한 모습의 옥석류

그림2. 재질 분석 모습